

# 강진군, '대표 먹거리 개발 컨설팅 품평회' 개최

### 육회 떡볶이·표고버섯 육전 등 컨설팅 메뉴 품평회 이원일 셰프 직접 레시피 전수는 물론 컨설팅 교육도

강진군이 7일, 군내 음식점(인달)에서 이원일 셰프를 통해 개발한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인 육회 떡볶이와 표고버섯 육전 등 컨설팅 메뉴에 대한 품평회를 군 관계자와 언론사, 한국외식업중앙회 강진군지부 회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었다.

MZ세대를 포함해 다양한 고객 취향에 맞춰, 맛의 도시 강진 컨설팅 대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추진된 이번 컨설팅은 지난 1월부터 5개 업소를 선정하고, 군에서 이원일 셰프와의 접촉을 통해, 군의 특산물을 활용한 업소별 맞춤형 레시피를 제안받으면서부터 시작했다.

이번 품평회에 출품된 음식은 '도하짓 비빔국수', '강진한우 육회떡볶이', '표고버섯 육전(달밥)' 등으로, 이원일 셰프에게 직접 레시피 전수는 물론, 컨설팅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음식을 시식하고 맛 평가를 가

졌으며, 군은 추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표 먹거리 개발 컨설팅을 보완하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품평회에 참가한 '인달' 영업주 장인환은 "이원일 셰프와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번 컨설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앞으로도 새로운 음식 개발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강진군 이준범 문화관광실장은 "강진 대표 먹거리 개발을 통해 강진의 재료를 활용한 특색있는 메뉴 개발과 보급으로, 온라인, SNS 등을 통해 맛의 도시 강진을 적극 알리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강진의 맛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진군은 맛의 도시, 강진 육성을 민선8기 60대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로 설정하고, 특화된 맛 개발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대표 먹



거리 개발 컨설팅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맛의 도시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 5백만 유치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군은 지난 3월 강진군의 대표 먹거리로

개발한 강진한우 육회떡볶이와 표고버섯 육전의 홍보를 위해, 파워 유튜브 '쏘영'과 먹방 촬영을 진행해 조회수 16만 회를 기록중에 있다.

강진=김영일기자

## 장흥군, "어촌뉴딜300, 살기 좋은 어촌 만든다" 2019년부터 선정...550억 원 확보

장흥군이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지역 어촌의 활력을 높이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행안부 공모 사업으로 어촌·어항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어촌이 보유한 핵심자원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장흥군은 지난해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으로 회진면 이회진항이 최종 선정되어 사업비 95억 원(국비 66, 도비 9, 군비 20)을 확보했다.

2019년 회진 노력항을 시작으로 관산우산항, 회진 신상·신기항, 대리항, 안양수문항에 이어 6번째로 어촌뉴딜300 사업에 선정된 것이다.

이 기간 장흥군은 총 사업비 550억 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해양수산부에서 최종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이회진항은 청정 무산(無酸) 해조류를 중심으로 한 풍부한 수산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으로는 열악한 어촌·어항 기반을 정비하고, 해조류복합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해 나간다.

김, 다시마, 꼬시래기, 쇠미역 등 해조류의 브랜드 경쟁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문화·관광 분야의 인프라 재정비 사업도 추진한다.

소설가 이정준 '선학동 나그네'의 소설 배경이 되는 선학동에 문학탐방로를 조성해 문학쉼터와 휴양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인근에는 갯벌체험로 개설로 바지락 및 꼬막 캐기 등 어촌 체험이 가능한 시설을 만든다.

기존 천년학 리조트는 리모델링과 증축을 통해 해조류복합커뮤니티센터, 해조류연구소, 체험학교 등으로 활용 폭을 넓힌다.

2021년 선정된 수문항은 어촌·어항 기반정비하고 키조개 테마공원을 조성해 키조개 브랜드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2020년 회진 신상신기항은 선착장을 연장하고 물양장을 확장하여 어민들의 안전한 선박접안과 작업공간을 확보하여 어민 소득과 연계한다.

대리항은 선착장 연장도 도제 신설로 어민의 선박을 보호하고, 우산항은 물양장과 선착장 연장 확장한다.

김성 장흥군수는 "어촌뉴딜300 사업을 통해 오고 싶은 마을, 살고 싶은 마을로 생활기반을 개선할 것"이라며, "안정적인 어촌·어항 기반을 구축해 지역경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장흥=김도영기자



## 완도 해양자원으로 만든 화장품, 5개국 수출길 크림·마스크팩 등 25만 4천 달러 수출 계약 체결

완도군은 지난 4월 7일 (제)전남바이오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서 해양자원을 소재로 만든 화장품 수출 선적식을 가졌다.

선적식은 완도군 관내 기업 3개 사가 캄보디아, 스페인, 미국, 러시아, 두바이 등 5개국을 대상으로 25만 4천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며 이뤄졌다.

수출 성과를 거둔 3개 사 중 ㈜흥일식품은 다시마와 미역귀로 만든 보습크림을 캄보디아에, ㈜그린오션은 다시마로 만든 마스크팩을 스페인에, 어업회사법인 ㈜이노플렉스는 미역 우래 후코이단, 다시마, 참풀가사리 등을 활용

한 슬리핑 크림 외 4종을 미국, 러시아, 두바이에 수출했다.

특히 도내 화장품 기업 중 처음으로 캄보디아와 스페인에 화장품을 수출하게 되어 이번 선적식은 더욱 의미가 컸다.

이번 화장품 수출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스마트 특성과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도 내 화장품 기업 육성 및 발굴을 위한 생산기지를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구축함으로써 화장품 개발 및 생산지원 등이 이루어져 얻은 결과물이다.

완도=기동취재본부

## 무농약 친환경 바나나, 진도군 수확 한창 일조량 많고 겨울 따뜻해 재배 적지...맛·영양 가득

진도군에서 무농약 바나나 수확이 한창이다. 대표적인 아열대 과일의 상징인 바나나는 진도읍과 지산면 일대에서 2020년부터 재배되고 있다. 재배 면적은 0.6ha 규모로 18톤의 친환경 무농약 바나나가 올해 수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진도산 바나나는 지방, 나트륨, 콜레스테롤이 없고 변비와 고혈압 예방 등에 도움을 주는 수용성 식이섬유, 펙틴, 칼륨 등이 풍부하게 함유돼 있다.

특히 숙성이 덜 된 상태로 한국에 들어오는 수입산 바나나에 비해 신선하며, 맛과



과육이 부드럽고 22브릭스로 당도가 높다.

진도=조상용기자

## 해남군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공직자 현장탐방 운영

해남군은 지난 4월 각 실과소와 읍면 직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직자 현장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공직자 현장탐방은 군정 주요 현안사업장 방문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다.

이번 참가자들은 대부분 해남에 연고가 없거나 근무 경력이 짧은 5년 이하의 신규 직원들로 '공직자부터 내 고장알기'를 실현하기 위해 탐방에 참여하게 됐다.

탐방지역은 관내 대규모 사업장인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면 대한조선을 차례로 방문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한국섬진흥원

전라남도